

그 일당들과 공모하여 벌인 일련의 사기 사건에 휘말려 벌어진 사고입니다. 관련 뉴스에 언급된 것처럼 박윤창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고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 (주)디에셋핀테크는 전혀 관여된 바가 없고 이용만 당한 일종의 피해자입니다.

오히려 박윤창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(주)디에셋핀테크를 본인의 사기 행각을 위한 홍보용, 과시용(금융인으로서) 및 자금 모집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(디에셋펀드)과 오프라인 동시 운영을 통한 사기 극대화를 위해 사문서 위조, 전산 조작, 이중 담보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.

이를 위해 박윤창은 본인 소유 축산물 유통회사인 (주)한울네트웍스(사고 발생 직전인 2024년 3월 31일자로 폐업, 사업자 등록번호 120-87-20640, 법인등록번호 110111-3770644)의 임직원은 물론 친인척(특히 처가) 소유 법인간 부당 거래, 창고의 임직원과의 공모 및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치밀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습니다.

금번 사기의 최대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담보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여러 일들은 박윤창과 그 일당들의 사악함과 악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우선 그들은 창고에서 근무 중 피해자들이 들이닥치자 사무실 및 창고의 오픈을 거부한 채 대치하다 도주하였으며 그 후로도 일절 연락 및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. 저희가 창고에서 만난 다양한 피해자들 또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그 중에는 수십명의 투자자들은 물론 마장동에서 실제로 축산유통업을 운영 중인 다수의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
이렇게 다양한 피해자들이 일전의 공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고가 오픈되어 담보물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복잡한 이해 관계 및 공정성 문제로 제 3자가 주관하는 재고 재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물론 인도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피해자들의 합의를 무시한채 진행 하였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일부 마장동 유통업자들은 박윤창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 단톡방 내용을 박윤창에게 전달함은 물론 피해자 모임의 결성 및 단체 행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걸으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뒤로는 박윤창을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또한 피해자 모임에는 박윤창 회사(한울네트웍스)의 전 직원이 버젓이 피해자 유통법인 대표(2024년 1월 26일 설립)로 참석하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.